

企劃論文

한국전쟁기 38선 북진과 냉전의 고착화

이 상 호*

I. 서론	IV. 미·중 대결로의 국제전 전화와 냉전의 고착화
II. 한국전쟁의 발발과 북진정책에 대한 논쟁 대두	V. 결론
III. 인천상륙작전과 38 선 북진 논쟁의 해결	

I. 서론

최근 현대사와 관련한 논문에서는 예외 없이 냉전(Cold War)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정의 없이 일종의 ‘일반명사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은 역사적 시기를 갖는 용어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냉전이라는 개념은 실제적인 전쟁행위는 없는 가운데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동원을 요구하는 위기를 의미한다.¹⁾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의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미·소간의 대립과 갈등을 가리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시대 상징어로서 그리고 국제적 체제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²⁾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통합과정 수료, 한국현대사 전공

1) 김진웅, 「냉전의 기원론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논집』 제6집(1984), 125 쪽

2) 냉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진 개설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비봉출판사, 1998).

그렇다면 한반도의 냉전의 기원과 구조화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체제의 형성은 봉쇄정책의 국내화로 볼 수 있다. 봉쇄정책³⁾이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 세력과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팽창에 대응하여 이를 기존의 소련 세력권내에 한정시키고자 한, 즉 소련 영향력의 더 이상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초기 냉전시대 미국의 대소 외교정책 혹은 외교 전략이었다.⁴⁾

한반도의 냉전체제에 대한 기원문제는 아직도 상당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The Truman Doctrine) 발표 이후 미·소 냉전이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반도에서는 그 기원문제가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 기원문제에 관하여 알타회담 이후 남북한 분단이 바로 냉전의 구조적 기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1945년 9월 런던회담 이후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1946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를 한반도 냉전의 기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⁵⁾

커밍스(Bruce Cumings)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국제주의, 봉쇄정책, 반격정책으로 전개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1945년 9월부터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봉쇄정책이 추구되었으며 1946년과 1947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점차 실질적인 봉쇄정책으로 전개되어 1949년 말까지는 이미 반격정책의 형태로서의 봉쇄정책이 추구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⁶⁾ 반면에 하영선은 미국의 봉쇄정책은 1947년

3)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에 관해서는 주소련 대리대사인 케난(George F. Kennan)이 1946년 2월 Long Telegram을 통해 구체화 되었고 이후 1947년 7월 *Foreign Affairs*에 X라는 가명으로 게재된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라는 논문으로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65 No. 4 - Containment: 40 Years Later, spring 1987; 이에 대해 언론인 리프만(Walter Lippmann)은 1947년 《*New York Herald Tribune*》에 케난의 봉쇄정책 원리를 비판하며 Cold War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Lippmann, Walter,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Vol. 65 No. 4 - Containment: 40 Years Later, spring 1987.

4) 김진웅, 「케난의 봉쇄정책에 관한 논쟁」, 『역사교육논집』, 제13·14합집(1990), 1223~1225쪽

5) 히라이마 타츠미(저)·이성환(역), 『한반도 냉전의 기원 미국의 대한국정책 1942~1946』(중문, 1999). 이외에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를 주장하는 이완범의 견해와 1947년 중국의 양쯔강 도하 이후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었다는 차상철의 견해가 있다.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백산서당, 2000); 차상철, 「미국의 극동정책과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북미주학연구』, 2002년 2월

6) Cumings, Bruce, “Instr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83[박의경 역,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1943-1953』(청사 1987)].

이후 비군사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구되다가 한국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⁷⁾

한편 이정식은 스탈린은 일본이 항복했던 1945년 8월에도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10월에 들어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교섭을 단절하고 북한지역에 단독정권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탈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그 해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열렸던 런던 외상회담의 초반에 야기된 미소간의 대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⁸⁾ 런던회의에서의 대립은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중대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런던회의의 결렬 이후 스탈린의 정책을 요약한다면 미국과의 협력과 타협을 포기하고,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소련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를 세우는 데 주력하여 미국을 제외한 소련중심의 협력체를 구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체로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기원은 남북한 정권 수립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러나 곧이어 남북한은 상대방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의한 ‘국토완정론’을 남한은 북진통일론을 주장하며 체제 대결이 가속화되어 갔고 결국 무력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국내적으로는 해방 이후 분단해소를 위한 내전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미·소 냉전 이후 최초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리전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 체제순화(體制純化)를 가져왔고 남한에는 반공주의, 북한에는 반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리매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인 냉전구조가 구조화된 것이다.

분단이후 설정된 냉전체제는 실제로 열전(Hot War)으로 비화되었고 전쟁기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미·중 대결로 전화되어 동북아시아 냉전의 구조화로 변질되었다.⁹⁾ 초기 한국전쟁이 내전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미국의 참전과 38선 북진으로 인한 중국의 개입은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이다.¹⁰⁾ 특히 3년간의 장기간에

7) 하영선,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7집(1993), 24~29쪽.

8) 이정식,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과 한반도의 분단」,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부설현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1997년 10월 31일, 66쪽,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353쪽

9)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2003).

걸친 전쟁과정 속에서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지역을 해방하려는 이른바 ‘38 선 북진’이야말로 중국의 참전을 불러 일으켜 미·중 대결로 국제전화 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인 냉전구조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전쟁 발발 직후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작전 구상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국무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으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이 주도권은 군부와 맥아더사령부 쪽으로 기울어졌다. 즉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한국전쟁을 국제화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하여 미 국방부와 맥아더사령부가 추구한 반격(Rollback) 작전이 그 원인¹¹⁾이 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개념은 국제정치적 성격을 갖는 용어로서 당연히 이러한 국제전의 성격을 갖는 한국전쟁의 전후 상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전후로 한 전쟁 상황과 함께 미 수뇌부에서 열띤 논쟁이 되었던 38 선 북진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이것이 동북아시아 냉전의 구조적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한국전쟁의 발발과 북진정책에 대한 논쟁 대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초기 북한의 우세한 화력에 의해 남한의 전면적 후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태 전개에 대해 6월 25일 유엔안보이사회는 한국분쟁에 관하여 즉시 전투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 선으로 철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회의에는 소련만이 결석했을 뿐 11 개국 중 10 개국이 참석하였는데 정전

10) 윌리엄 스톡(지음)·김형인(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푸른역사 2001). 최근 저작에서 스톡은 한국내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자가 통일을 열망하던 당시 한국인들의 인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 분단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윌리엄 스톡(저)·서은경 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나남출판, 2005), 89~116 쪽

11) 반격(Rollback)이라는 의미는 특정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그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몰아내거나 격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소멸을 추구한 맥아더의 전략을 여기서는 롤백의 한 수단으로 표현한다.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두레, 1998), 16~17 쪽

에 관한 미국의 제안을 9대 0(유고 기권)으로 가결했다¹²⁾ 결의안 초안은 북한당국에게 남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북위 38도선의 경계선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유엔한국위원단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¹³⁾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남진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배후에 소련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해·공군 지원을 검토하였다.¹⁴⁾ 그러나 이때까지의 해·공군지원이 미국의 공식적인 참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당시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외국인의 안전한 탈출을 돕기 위한 작전에 지나지 않았다.¹⁵⁾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 밤 북한군에 대해 군사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 미국 결의안을 7대 1로 채택하였다.¹⁶⁾ 이 결의를 통해 트루먼(Harry S. Truman) 미 대통령은 각료들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이 38선 이남에 국한되고 38선 이북으로 확대된 군사행동이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⁷⁾ 미 공군 대변인도 27일 한국을 원조하기 위한 무력범위는 38선 이남에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¹⁸⁾

당시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소련이 서방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¹⁹⁾

12)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13) “Resolu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ne 25, 1950, *FRUS, 1950*, Vol. VII, pp. 155~156.

14) “Immediate Release-Statement by the President,” 『한국전쟁 자료총서 3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 관련문서 I』(국방군사연구소, 1999), 448쪽.

15) Millett, Allan R., “Crossing the 38th Parallel, 1950: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the American Armed Forces,” *Eighth United States Army History Office Historical Monograph 98-1*, HQ, EUSA, August 1998; Operation Plan “Chow-Chow” 1949~1950, MacArthur Archives, RG 6, Series 3: Operations and Plans, Box 100, Folder 11.

16) “Resolu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June 27, 1950, *FRUS, 1950*, Vol. VII, p. 211; 《민주신보》, 1950년 6월 30일

17) “Korean Situation” Memorandum of Conversation, 『한국전쟁 자료총서 3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 관련문서 I』, 372~379쪽.

18) 《민주신보》, 1950년 6월 30일

1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the Soviet Union,” *FRUS 1950*, Vol. VII, pp. 176~177.

우리는 만약 소련군이 출현하여 한국에서 작전을 개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왔다. 만약 실제 소련군이 한국에서의 우리의 현재 작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군은 방어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현장에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만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즉각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²⁰⁾

당시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사임하고 고문으로 있던 케난(George F. Kennan)도 소련이나 그 위성국이 공격할 지도 모르는 지점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란이나 동독에 대한 소련 국경은 곧 소련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상황을 지켜 본 결과 소련이 공개적인 개입은 피하려고 하며, 전면전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한국문제가 중국 공산당에게 불쾌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²¹⁾

그러나 미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경우는 6월 29일 한강전선을 시찰한 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고 유실된 지상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 지상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미지상군 투입이 없는 공군과 해군의 운용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전반적인 평가였다.²²⁾ 그러나 이때까지 맥아더가 북진을 통한 한반도 전역의 수복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²³⁾

6월 30일 트루먼 미 대통령은 국방·국무 양 장관 및 합동참모의장과 함께 한

2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Defense(Johnson), Enclosure-Draft Policy Statement Prepar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Vol. VII p. 217.

21) "Memorandum by George F. Kennan," 『한국전쟁 자료총서 40: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II』(국방군사연구소, 1999), 249쪽.

22)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MacArthur)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Vol. VII, pp. 248~250.

23) 6월 27일 제 차 블레어하우스에서 미국이 해·공군을 지원한 결정을 듣고 맥아더의 입장이 대대적으로 전환되었다는 도진순의 주장은 이후의 사태 전개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바로 그 시점에서 맥아더가 38선 북진을 통한 반격(roll back)을 계획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limited war)의 성립과 분화」, 『한국사연구』 125집(한국사연구회, 2004년), 264~266쪽

국 사태의 상황을 검토한 후, 미국 공군에게 군사적으로 필요한 북한 내의 모든 특수군사 목표도 공격할 것을 인가했다.²⁴⁾ 그는 맥아더에게 주일미군 제24사단을 한국전쟁에 이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군에게는 38선 이북에 있는 군사목표물을 공격하도록 지시했다.²⁵⁾

이러한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공격이 구체적으로 북한지역의 수복이라는 목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 단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수송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한국전쟁 상황에 비추어 소련이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 73에 근거한 것이었다.²⁶⁾ 도쿄의 관측통에 의하면 미국 정가에서는 소련의 직접적인 한국전쟁 개입은 없을 것이고 대신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중국을 개입시킬 것으로 평가했다.²⁷⁾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8선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북한지역의 수복을 전쟁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미국무부의 덜레스(John F. Dulles), 앨리슨(John M. Allison), 에머슨(John K. Emmerson) 등이 그들이었다

앨리슨 미 국무부 동북아 국장은 한국문제와 관련한 트루먼 연설문 준비 과정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군을 단지 38선 이북으로만 축출하고 더 이상의 진격은 없을 것이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대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38선으로 인한 인위적인 분단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목표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성명서에 38선 이북으로까지 진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미국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미리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²⁸⁾

24) 《민주신보》, 1950년 7월 2일

2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Mr. Frederick E. Nolting, Special Assistant to the Deputy under of State(Matthews)," *FRUS 1950*, Vol. VII pp. 258-259.

26)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73)," 『한국전쟁 자료총서 1: 미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국방군사연구소, 1996), 355-370 쪽

27) 《부산일보》, 1950년 7월 9일

덜레스 미 국무장관 고문도 니츠(Paul Nitze)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38도선 북진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 달성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38 선은 결코 정치적인 분단선이 된 적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만약 가능하다면 38 선 이북으로까지 추격해서라도 북한군을 격퇴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는 위협을 제거하고 새로운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²⁹⁾

또한 미 국무부 한국과장 에머슨도 니츠에게 보낸 38 선에 대한 대책에 관한 비망록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6월 27일 결의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군사공격을 격퇴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결의안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38 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 이상의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8 선 이북지역에 대한 상륙과 지상 작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38 선 이북으로 퇴각하도록 압력을 받기 전에 미 육·해·공군 작전이 실시되어 북한의 잠재적인 역량과 전투의지를 꺾음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이 유엔에 의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³⁰⁾

여기에 38 선 이북으로의 북진을 주장하는 현지사령관 맥아더의 주장도 나타났다. 7월 13일 맥아더는 콜린스(Lawton J. Collins)와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와의 회동에서 7월 7일 유엔의 결의에 따라 7월 중순 유엔군을 지휘할 때 뚜렷한 지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워싱턴과는 다른 지침을 밝혔다.³¹⁾ 즉 “나의 의도는 북한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전역을 점령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고 선언했다.³²⁾

38 선 제한 철폐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쟁점화 되어 나타났다. 7월 10일 이

28) “Korean Speech for President Truman” Memorandum from Allison to Rusk, 『한국전쟁 자료총서 41: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III』(국방군사연구소, 1999), 91쪽.

29) “Memorandum from Dulles to Nitze,” 『한국전쟁 자료총서 4: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Country & Area Files, Korea I』(국방군사연구소, 1997), 85~87 쪽

30) “Policy toward the 38th Parallel” Memorandum from Emmerson to Nitze, 위의 책 82~84 쪽

31) Allan R. Millett, *ibid.*

32)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 179.

승만 대통령은 기자와의 회담에서 북한군의 침략으로 38도선은 이미 자동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말하였다. 소련이 북한을 원조해서 남침을 하였고 이는 국제적 신의를 파괴한 행동이므로 자연히 38선도 소멸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승만은 더 나아가 이러한 경계선 철폐로 인해 한국은 한만국경까지 진격할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했다.³³⁾

7월 14일에도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함으로써 이미 38도선의 분할선을 파괴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한국의 내전이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와 국가주의자 간의 전쟁인 것이며 소련은 한국이 일취월진(日就月進)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기회를 일실(逸失)하면 그 야망을 위한 기회가 없다는 의도 하에 침략전쟁을 개시한 것이다.³⁴⁾

《민주신보》가 워싱턴발로 보도한 AP합동 통신에 의하면 미국 및 외국에서는 한국의 전황이 연합군의 공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이북까지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6월 25일의 결의는 유엔군의 38도선 이북으로의 군사행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의는 정전,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격퇴와 한국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요망하고 있으나 유엔군이 전 한국을 점령하지 않는 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국제적으로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³⁵⁾

7월 19일 한국문제에 대한 특별교서에서 트루먼 미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 내의 특수군사목표 공격에 미 공군부대와 해군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였으며 또 북한 해안을 봉쇄할 것을 지령했다.³⁶⁾ 그러나 이 명령이 실제적으로 북한지역으로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군에 의해 전선에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목표

33) 《경제신문》, 1950년 7월 14일

34) 《경제신문》, 1950년 7월 15일

35) 《민주신보》, 1950년 7월 27일

36)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국방부, 1951), C 93~96쪽

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38 선에 대한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 국무부의 백서가 7월 20일 발간되었다

한국이 고급 전시회의에서 공식으로 분할 점령 지역으로 협정된 일은 단연코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38 선을 경계로 한국을 영속적으로 분할할 의사는 전무하였다. 38 선으로 말하자면 전쟁의 급박한 상태에서 나타난 뜻하지 않은 경계선이였다. 1945년 8월 이후 한국의 분할을 소련점령당국에서는 마치 미·소 양군간의 항구적 경계인 것 같이 혹은 마치 양군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넘을 수 없는 통로인 것 같이 자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³⁷⁾

그러나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실제 공격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은 7월 22일 미국의 즉각적 목표가 적대행위의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라며 38도선 북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군의 개입과 전력에 비추어, 지상군 작전을 38선 이남에 국한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할 만한 조건으로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고, 미군의 필요를 최소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기획실은 38선 북진은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이유는 소련과 중국의 반응 때문이었다. 정책기획실에 따르면 만약 38선 이북에 대한 유엔군 작전이 한국문제의 최후해결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고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손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³⁸⁾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은 7월 25일 미군의 38도선 돌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유엔군이 38선에 도달했을 때 직면하게 될 미국의 행동방침에 관한 결정은 군사적·정치적 진전 상황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이에 따른 기타 유엔국가들의 지지가 확실해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37) 위의 책, C 98~102 쪽

38) "Second Draft, 38th Parallel," 『한국전쟁 자료총서 4: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Country & Area Files, Korea I』, 309~317 쪽

39) "S/P Paper on U. S. Policy regarding the Advance beyond the 38th parallel of U. S. Forces

이러한 정책기획실의 상황분석은 38선 북진이 다른 국가 특히 소련에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인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월에 들어와 38선 북진에 대한 논쟁이 점차 가열되었다. 후퇴하던 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기점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 논쟁은 38선 이북으로의 반격(rollback)을 주장하는 러스크(Dean Rusk), 앨리슨, 델레스 및 군부와 맥아더를 포함하는 태평양주의자들과 케난과 국무부의 정책기획실이 중심이 된 대서양주의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⁴⁰⁾

델레스는 니츠에게 보낸 8월 1일자 비망록에서 38선 돌파에 관한 문서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확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하며 38선 북진을 감행했을 때 아시아 대륙에서 소련군·중국군과 전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⁴¹⁾ 그러나 통일은 대중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남한정부가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이 통일을 주장하고 남한이 분단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950년 8월 7일 미 국방부도 38선 북진 시 미국의 행동방침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문서에서 미 국방부는 38선 자체는 군사적 승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군사적 의미도 없다는 것과 통일된 한국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은 지역적인 규모에서 중국군의 투입이나 유엔에서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포함한 소련의 군사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통일이라는 장기목적을 위해 유엔군 총사령부는 북한군의 궤멸을 통한 한반도 점령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유엔군총사령관은 38선 이남·이북에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군사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한편 앨리슨도 8월 12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동 초안을 작성하면서 38선 자체는 군사적 승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

now engaged in Korea as a part of the U. N. Forces,” 위의 책, 53~61쪽

40) 도진순, 앞의 논문, 266~275쪽.

41) “Memorandum by Mr. John Foster Dulles, Consultant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Nitze),” *FRUS 1950*, Vol. VII p. 514.

42) “Draft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Consideration Only,” *FRUS 1950*, Vol. VII pp. 528-537.

떤 군사적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⁴³⁾

장면 주미대사는 리스크 미 국무차관보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더 이상 38 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의 통일과 독립에 관한 장래의 해결은 이와 관련한 유엔의 결정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스크 차관보는 미국은 현재 38선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예상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 이유는 그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유엔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⁴⁴⁾

한편 8월 8일 케난은 국무장관을 위해 유엔군의 반격을 예상한 소련의 향후 대응을 분석한 문서에서 소련은 38 선 북진을 시도하는 미군을 제압하기 위해 소련군으로 북한을 재점령할 것으로 보았다. 즉 소련지도부는 미국이 38 선을 넘기 전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⁴⁵⁾ 케난은 미 국무부 차관보 매튜스(Freeman H. Matthews)에게 서한을 보내 38 선에서 북한과 유엔군을 동시에 철수하지는 제섭의 비망록을 찬성한다며 남한을 유엔의 신탁통치체제로 둘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다.⁴⁶⁾

8월 21 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은 유엔군의 공세에 의한 전황이 바뀌기 이전 북한군이 철수할 경우 남한군과 유엔군 모두 38 선 이남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조건으로 보았다.⁴⁷⁾

미 국무부는 8월 23일 북한군을 38 선 이북으로 축출한 이후 미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을 보고하는 문서에서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의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43) "Draft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Allison)," *FRUS 1950*, Vol. VII pp. 571~573.

44) "Problems relating to Korea,"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Emmons), *FRUS 1950*, Vol. VII pp. 709~711.

45) "Memorandum for Secretary of State," 『한국전쟁 자료총서 29: 미국국무부정책연구과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IV』(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680~689 쪽

46) "Memorandum by the Counselor(Kennan) to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Matthews)," *FRUS 1950*, Vol. VII p. 615.

47) "Proposed Terms for a Settlement of the Korean Conflict Prior to the Assumption of the Offensive by UN Forces" Draft Memorandum Prepared by the Policy Planning Staff, *FRUS 1950*, Vol. VII pp. 615~616.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38선에 접근했을 때 한국과 세계 다른 지역 상황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을 때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⁴⁸⁾

8월 30일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유엔군의 38선 북진 문제에 대해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우선 미국 대표부는 영국과 프랑스 대표단에게 미국의 행동방침을 제안했다. 만약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한다면 유엔군은 유엔이 지시하지 않는 한 38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소련군과 중국군이 투입되거나 명확한 개입의도가 포착된다면 향후 행동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주제에 대한 추가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유엔군은 38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도 38선을 넘는 것이 공격을 격퇴하는데 목적을 둔 6월 27일의 안보리 결의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38선 북진이나 북한에 항구적인 점령권을 확립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결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38선 북진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추가적인 성명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소련의 개입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다.⁴⁹⁾

결국 예비회의를 거쳐 9월 14일 미국·영국·프랑스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점령을 목적으로 한 38선 이북의 작전은 오직 유엔 회원국의 찬성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유엔군은 북한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내몰거나 축출할 목적 하에 38선 이북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은 위험이 포함될지 모르는 반격을 수행하기 위해 상륙작전이나 공수 작전, 지상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워싱턴으로부터 권한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⁵⁰⁾

이제 유엔군 및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과 전쟁 수행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었

48) "Future U. S. Policy with respect to Korea," Draft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for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Consideration Only, *FRUS 1950*, Vol. VII, pp. 635-639.

49) "Preliminary Conversations for September Foreign Ministers Meeting, August 30, 1950,"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SFM Pre 4, *FRUS 1950*, Vol. VII, pp. 667-671.

50) "September Foreign Minister Meetings-Summary for Briefing of the Secretary on Korea,"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50*, Vol. VII, pp. 726-727.

다. 38선 북진문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쟁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될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촉발된 38선 북진에 대한 논쟁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III. 인천상륙작전과 38선 북진 논쟁의 해결

1950년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의 진격이 가속화되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맥아더의 구상은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⁵¹⁾

7월 4일 극동군사령부 회의실에는 육, 해, 공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맥아더와 알몬드(Edward M. Almond) 장군이 상륙지점에 관해 토의를 하였으며 ‘블루하트(Bluehearts)’라는 작전이 계획되고 작전일자는 7월 22일로 결정되었다.⁵²⁾ 즉 극동미군 사령부 G-3 참모 라이트(E. K. Wright) 준장 통제 하에 있는 합동전략기획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이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으로 반격작전을,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 및 미 제1기병사단을 돌격상륙부대로 삼아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내용이었다. 7월 6일 극동군사령부는 게이(Hobart R. Gay) 소장을 불러 인천에 상륙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⁵³⁾ 그러나 이는 전선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7월 8일에 중단되었고,⁵⁴⁾ 블루하트 계획은 7월 10일 무효화되었다.⁵⁵⁾

맥아더는 상륙 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군산·해주·진남포·원산·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고 상이한

51)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p. 334~337.

52)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p. 488~489.

53) *Ibid.*, p. 196.

5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12~17쪽.

55) Schnabel, James F., *ibid.*, p. 140.

몇 개의 계획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크로마이트(Operation Chromite) 작전 계획으로 그 초안이 7월 23일 미 극동군사령부 관계 참모들에게 회람되었다.⁵⁶⁾

1950년 7월 24일 맥아더는 도쿄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거의 예외 없이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이 유엔군사령부에 대응한 직책의 참모에 임명되었다. 사실상 유엔군사령부는 부가적인 임무를 더 부여받은 극동군사령부 그 대로였다.⁵⁷⁾

맥아더는 실제 군단참모 구성에 앞서서 극동군사령부 참모들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임시 계획 참모진을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8월 15일 이 편성의 본래 목적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이 새로운 참모진을 극동군사령부내의 특별계획 참모부(Special Planning Staff)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참모장에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을 임명했다. 결국 합동전략기획단은 8월 12일 극동미군사령부 작전계획 100-B를 하달하였다. 목표 지역은 인천 서울 지역이 특별히 지정되었으며 잠정적인 D-Day는 9월 15일이였다.⁵⁸⁾

인천상륙작전의 구상은 북한군의 모든 역량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에 대한 방어 능력은 극히 미약하며 북한의 증원 또한 기대될 수 없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였다.⁵⁹⁾ 맥아더는 전략적·심리적·정치적 이유를 들어 서울은 신속히 탈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⁶⁰⁾ 이는 서울이 한국의 상업중심지이고 주요도로와 철도의 주요 교차지점이기 때문이었다. 즉 주요 도로는 남으로 대전, 동남쪽으로는 충주와 부산, 서로는 인천, 북서로는 평양 북동으로는 원산에 이르렀다.⁶¹⁾ 맥아더는 군산은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조금만 물러서면 뜻하는 대로 포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5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35쪽.

57) "The Far East Command, 1 Jan. 1947~30 June 1957," MacArthur Archives, RG 6, Series 5 Printed Material, Box 107, Folder 3, p. iii; Schnabel, James F., *ibid.*, p. 103.

58)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cArthur Archives,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5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61쪽.

60) Unmarked "How Inchon was Chosen, etc," Selections, MacArthur Archives,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5.

61)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cArthur Archives,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인천상륙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방어에 소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⁶²⁾

8월 24일 인천상륙작전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제8군 사령부 자리에 극동군주일군수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 JLC)를 설치했다.⁶³⁾ 그리고 27일 미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하여 유엔군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두게 하였다.⁶⁴⁾ 맥아더는 8월 26일 공식적으로 10군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정식으로 인천상륙작전의 명칭을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이라고 부여하였다.⁶⁵⁾

1950년 9월 12일 미·영 혼성의 기습 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맹포격을 가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⁶⁶⁾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인천상륙작전은 손쉽게 교두보를 확보했다. 9월 16일 미 해병사단이 전진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진격작전의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총 손실은 전사자 4명과 부상자 21 명뿐이었다.⁶⁷⁾

미 해병 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는 인천상륙작전의 전반적 성과를 적절하게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으로 열거하였다. 첫째, 적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급속히 와해시켰다는 것, 둘째,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적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으며 여타 부대들의 공격이 이에 수반됨으로써 적의 참패가 동시에 초래되었다는 것, 셋째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 작전에 의해서 인천항만 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 시설이 복진 작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⁸⁾

인천상륙작전은 완전한 기습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군 내의 군인들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했는지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작전 당시에 관

62) Appelman, Roy E., *ibid.*, pp. 493~494.

63) Schnabel, James F., *ibid.*, p. 136.

64) Appelman, Roy E., *ibid.*, p. 383.

65) Schnabel, James F., *ibid.*, pp. 158~159.

6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23쪽.

67) 위의 책, 179쪽

68) 위의 책, 342~343쪽.

한 문건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미 제10군단에서 포로로 잡힌 서울연대 장철 대위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자.

서울연대 대위였던 장철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 서울 연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는 9월 16일에서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이 당시 그는 서울연대 제1대대 1중대장 대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연대는 서울과 그 근교에 방어망을 형성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서울연대는 이 당시 서울에 주둔한 유일한 부대였다. 서울연대에 지원병력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없었다. 장철은 상급자로부터 ‘서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죽음으로라도 사수하라’는 지도를 받았다. 서울연대는 이경우(Lee Kyong U) 대좌가 이끌고 있었다. 장철은 실제적인 전투훈련을 받지 않았다. 서울연대의 인원들은 고작 길어야 2달 짧게는 15일의 군사훈련을 받았을 뿐이다. 결국 서울연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장철은 북한군내에 많은 사상자를 불러온 미군의 공중 폭격으로 인해 1950년 9월 22일 경에는 서울 사수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다⁶⁹⁾

장철 대위에 의하면 서울연대의 장교 또한 미군의 상륙을 9월 16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연대의 전투원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15일 27여단은 서울 북쪽 금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철근(Lee Chul Kun)은 이 여단의 문화부대대장이었다. 1950년 9월 초, 고위 장교 사이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미군이 원산, 인천 혹은 목포에 상륙할 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돌았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27여단은 38선과 평행한 서울 북쪽 24km 지역을 방어하도록 명령받았다. 이는 미군의 서울 수복 이후 북쪽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남부 전선에의 북한군 주요 부대에 관한 소식은 알 수 없었다. 빈약한 통신수단으로 인해 더 이상 남부전선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었다. 이철근은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죽음으로서 이 지역을 사수하자고

69)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자주 강연했다. 27여단은 남쪽으로부터 지원병을 받지 못했다. 27여단은 강연길(Kang Yon Kil) 여단장과 참모장 신리봉(Shin Ri Bon)에 의해 지휘되고 있었다. 27여단의 부대원들은 평균 고작해야 20여일 간의 훈련을 받았을 뿐이다. 상륙한 연합군에 대해 그는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⁷⁰⁾

27여단 이철근 중좌의 심문기록에서도 북한은 열악한 통신 수단으로 인해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더욱이 상륙한 연합군에 대해 정확한 정보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9월 26일 마트베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암호전문에 의하면 이미 북한군은 괴멸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암호문에서 북한군의 상황이 어려워졌으며 보급상황도 매우 열악하고 심지어 명령체계도 붕괴되고 있다고 보고했다.⁷¹⁾

9월 29일 슈티코프가 상부보고를 위해 외무상 그로미코에게 보내는 암호전문에서도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북한군의 혼란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전에 군대를 조직적으로 퇴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기강 해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인해 미군이 제1군을 차단했으며 문경과 제천에서의 붕괴로 인해 제2군도 차단되었다. 김일성은 미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해 올지에 관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물었다. 본인은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북한이 38선 방어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지는 보고에서 슈티코프는 미군이 6개 사단과 2개 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주지역으로부터 진출하여 7개 사단으로 편성된 제2군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은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38선을 향해 진군하는 연합군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새로이 편성된 부대들은 수송수단의 파괴와 부족으로 전선으로의 이동이 매우 느

70) HQ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30 Sept. 1950, MA,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71) 「마트베예프가 핀사(스탈린)에게 보내는 암호문」, No. 600262/N, 1950년 9월 27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1953』

리다고 평가했다.⁷²⁾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38선 북진에 대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⁷³⁾ 북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도 전략목표를 변경하여 북한군의 완전 격파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50년 9월 20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은 북한군이 저항 시 38도선 이북으로 전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사적인 성공을 동반한 정치적 행동은 자유세계를 위해 최대한의 이익을 성취하고 소련과 그 위성국에 최대한의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유엔의 정치적 목적은 1947, 1948, 1949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서 규정되고 NSC 81에 의한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북한군의 괴멸이나 북한군의 저항이 계속된다면, 통일은 38선 이북으로의 전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9월 21일 장면 주미대사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정부는 한국 통일을 요구한 유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진군할 것을 한국 국민과 함께 열렬히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⁷⁵⁾

그러나 최고정책결정자인 트루먼 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북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9월 22일 기자회견 석상에서 만일 미국 군대가 38선까지 도착했을 때에 미국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은 아직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 문제는 유엔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즉 미군은 유엔군의 일부이며 유엔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떠한 결정이든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대답하여 38선 북진에 따른 책임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였다.⁷⁶⁾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군부와 맥아더에게 북진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

72) 「슈티코프가 외무성 그로미코에게 보내는 암호전문」, 1950년 9월 29일, 위의 책

73) 김영호, 앞의 책, 249쪽.

74) “Program for Bringing Korean Hostilities to an end,” 『한국전쟁 자료총서 9: 미국무부정책기획실 문서 Working Papers I』(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653-659쪽

75) “The Korean Ambassador(Chang)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Vol. VII pp. 748-750.

76) 《부산일보》, 1950년 9월 23일자

했다.77) 9월 26일 맥아더는 라이트 장군과 기획수립장교단에게 38 선 이북 지역에 또 다른 상륙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주었다. 라이트 장군은 9월 27일 과거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 준 개념의 현실적인 적용방안으로 8군은 서해안을 따라 평양으로 10군단은 원산에 상륙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원산은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물자를 블라디보스토크로 부터 들여오는 주 항구일 뿐만 아니라 육로로 지원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하고 있었다.78)

국무부와 국방부는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과 소련이 한국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유엔의 후원 하에 북한을 점령하게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79) 미 합참은 NSC 81/1 에 기초하여 맥아더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발송하였다. “귀관의 군사목적은 북한 군대의 괴멸이다. 이러한 목적을 얻는데 있어 귀하는 상륙작전, 공수작전 그리고 38 선 이북지역에 대한 지상작전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단 그러한 작전은 소련이나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북한 지역에서 우리 작전에 맞설 위협을 하지 않는 때에 가능하다”고 밝혔다.80)

마셜 미 국방장관은 트루먼 미 대통령에게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해 38 선 이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81)

맥아더 장군에게 내려진 지침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는 38 선을 넘어 작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9월 27일 육군부 작전국장인 볼테(Charles L. Bolte) 장군은 맥아더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으로써 그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38 선을 넘어서 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는 콜린스 대장에게 국방장관을 움직여 맥아더 장군의 38 선 횡단을 승인하도록 촉구하였다. 9월 27일 합참본부는 한국에서 맥아더 장군의 작전확대를 지시하는 전문을 보냈다.82)

77) Millett, Allan R., *ibid.*

78) Schnabel, James F., *ibid.*, p. 188.

79) *Ibid.*, p. 193.

80)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United States Mission at the United Nations,” *FRUS 1950*, Vol. VII, pp. 781~782.

81) “The Secretary of Defense (Marshall) to the President,” *FRUS 1950*, Vol. VII, pp. 792~793.

9월 30일 마셜(George C. Marshall) 미 국방장관은 맥아더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우리는 귀관이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지도 귀하에게 가해진 바 없다는 사실을 양해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였다.⁸³⁾ 이러한 전문은 유엔군이 북한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는 유엔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전쟁의 변화에 의해 수정된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었다.⁸⁴⁾ 38선 북진에 대한 논쟁은 이 전문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고 맥아더에게는 북한지역에 대한 작전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북진정책의 결정으로 결국 오스틴(Warren R. Austin) 유엔주재 미국 대표는 30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38선 북진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였다.⁸⁵⁾ 이는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수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IV. 미·중 대결로의 국제전 전화와 냉전의 고착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완전히 수세로 몰린 북한최고 지도부는 스탈린에게 긴급 전문을 보냈다. 1950년 9월 29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의 연서로 시작되는 이 전문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음을 시인하였다.

인천(제물포)지역에서의 상륙작전 이전에는 전선에서의 형편이 우리들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적들은 패배를 거듭하면서 남조선 최남단의 작은 지역으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최후의 결정적인 전투들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1950년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한 적들은 인

82) Schnabel, James F., *ibid.*, pp. 181-182.

83) “The Secretary of Defense(Marshall) to the Command in Chief,” Far East(MacArthur), MacArthur Archives 6, Series 1, Box 9, Folder 5.

84) 윌리엄 스톡(지음)·김형인(외 옮김), 앞의 책, 192쪽

85) 《부산일보》, 1950년 10월 3일

천을 장악하고 서울에서 직접 시가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군에게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 당신께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들은 우리 부대들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인천지구에 상륙한 상륙부대와 우리 전선을 돌파한 남부전선부대들을 연결시켜서 서울시를 완전히 장악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남부에 있는 인민군 부대들은 적들에 의하여 북부로부터 차단되었으며 남한에 있는 부대들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이제는 탄약, 무기 및 식량을 공급받지 못합니다.⁸⁶⁾

그러면서 김일성은 남한에서 동원한 10만 명의 군대를 작전상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이용하면서 장기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전 인민을 무장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⁸⁷⁾ 9월 29일자로 슈티코프가 그로미코 외무차관에게 보낸 유선 암호전문에서도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군의 직접 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일성의 요청 내용을 발송했다.⁸⁸⁾

10월 1일 스탈린(필리포프)은 주 북경대사를 통해 마오쩌둥과 주언라이에게 전문을 보냈다. 김일성이 미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의 직접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중국 측에 전가하려고 한 것이다.

모스크바는 이미 지난 9월 16일 미군의 제물포 상륙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제1, 2군을 북쪽의 후방과 차단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고 북한 동지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모스크바는 남쪽으로부터 4개 사단을 신속히 이동시켜 서울 북쪽과 동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점차 남쪽에 있는 군대의 주력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38선을 지킬 것을 권고했었다. 그런데 제1, 2군 사령부는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키라는 것에 대한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부대가 차단당하고 포위당하게 된 것이다. 서울 지역의 북한 동지들에게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부대가 없으며 38선을 향한 길은 열려

8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일성·박헌영이 스탈린에게 보내는 서신, 1950년 9월 29일 대한민국 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1953』」

87) 위의 문건.

88) 「슈티코프가 외무성 그로미코에게 보내는 암호전문, 1950년 9월 29일,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1953』」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⁸⁹⁾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중국이 5~6개 사단만 파견해도 북한이 38선 이북에서 예비부대를 편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하며 중국군이 의용군의 형태를 갖게 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다.

1950년 7월부터 중국 최고 지도부는 한반도에서의 대미 전쟁 준비를 추진해왔지만, 마오쩌둥은 9월까지의 참전 일시, 규모에 관하여 명확한 구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지도부 내에서 여러 차례 대책 연구 회의가 있었지만 마오쩌둥이 참전을 구상한 것은 8월 4일 회의에서 9월 참전을 예상했다 9월 말 UN군의 북상에 의해 중국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참전이 현실 문제로 되자 10월 1일 밤에 김일성의 구원 요청 편지를 계기로 참전 문제를 토론하는 정치국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2일의 회의에서는 마오쩌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참전 구상이 부결되었다. 대논쟁을 거쳐 5일의 회의에서 참전 결정에 간신히 이르렀지만 일주일 뒤인 12일 마오쩌둥은 의용군에게 출동 중지를 명령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참전 결정이 다시 채택되었다.⁹⁰⁾

이렇게 공산 진영의 최고수뇌부에서 중국 참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50년 10월 1일 맥아더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북한군의 무장해제와 유엔군 감시 하에 전투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전쟁포로 및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석방과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였다.⁹¹⁾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이러한 항복요구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사태 전개에 맞추어 북한 점령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주요 도시에 대한 점령은 유엔군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군사령관은 38선 이북 지역의 군정관으로서 점령 업무를 관장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89) 「필리포프(스탈린)이 주 북경대사에게 보내는 전문, 1950년 10월 1일 위의 책

90) 주지안룡(지음)·서각수(옮김), 『마오쩌둥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도서출판 역사넷 2005), 336~337 쪽

91)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FRUS 1950*, Vol. VII p. 796.

하고 있었다.⁹²⁾

오히려 유엔군에 대한 반응은 중국에서 먼저 나타났다. 10월 3일 주언라이는 북경의 주중국 인도대사 파니카(M. M. Pannikar)에게 유엔군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중국은 전쟁에 개입을 하겠지만 한국군만이 38선을 넘을 경우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성명을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⁹³⁾ 그러나 파니카에 대해 미국은 파니카 개인이 친공적이고 반미적인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⁹⁴⁾

10월 1일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던 한국군은 10월 4일 현재 40마일 이상 진격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주인도 미국대사 헨더슨(Loy W. Henderson)으로부터 중국의 한국전 참전을 시사하는 전문이 국무부에 도착했다. 이 전문에서 헨더슨은 중국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군이 북한으로 진입한다면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고했다. 만약 중국의 참전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전쟁은 아시아 최강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자유진영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⁹⁵⁾

10월 5일 북한에 중국군이 개입하였다는 믿을만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극동군사령부 정보장교들은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만약에 유엔군이 38선을 넘었을 경우 한국전쟁에 공공연히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윌로우비(C. A. Willoughby) 장군은 워싱턴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최소한 38개 중국군 사단 중에서 9개 내지 18개 사단이 한만국경에 집결하고 월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⁹⁶⁾ 8월 말부터 윌로우비 장군은 약 9개 군(25만 명)의 중국 병력이 만주에 이동했다고 보고했다. 인천상륙 이후에는 만주에 집결한 중국군의 수가 4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그는 추가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 소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92) "Memorandum from Emmerson,"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 문서 11』 (국방군사연구소, 1999), 239-241쪽; "Draft Paper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the Army," *FRUS 1950*, Vol. VII, pp. 854-857.

93) "The Ambassador in the Netherlands (Chapin)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Vol. VII, pp. 858-859; 윌리엄 스탁(지음)·김형인(외 옮김), 앞의 책, 191쪽

94) Schnabel, James F., *ibid.*, p. 198.

95) "The Ambassador in India (Hender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pp. 869-873.

96) Schnabel, James F., *ibid.*, p. 200.

소련이 개입할 경우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더욱 심각히 분석하고 있었다.⁹⁷⁾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참전 시사는 미국에 대한 위협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10월 7일 유엔총회는 미국이 내 놓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⁹⁸⁾ 물론 그 결의안이 북한을 점령한다든가 정복하러든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는 없으나 은연중 그러한 사항에 동의하고 있었다.⁹⁹⁾ 그러나 이미 이틀 전에 맥아더에게 보낸 메시지 초안에서 미 국무부는 유엔총회 결의안을 두고 이 결의안이 38선 이북에 대한 작전수행을 유엔총회가 지지할 뿐만 아니라 1950년 6월 27일 안보이사회 결의안 집행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했다.¹⁰⁰⁾ 이제 본격적인 북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10월 7일 미 국방장관 마샬은 대통령에게 중국군이 개입할 시 맥아더가 취해야 할 조치를 건의했다. 이 전문에서 사전 통보 없이 중국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시에는 유엔군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¹⁾

중국과 소련의 반응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 역시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CIA는 10월 12일 유엔군이 북한 영토로 진격할 때 소련과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정보판단을 하였다. 이 정보판단에서 중국은 해·공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소련 역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¹⁰²⁾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국은 유엔군의 38선 북진에 관한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주북경 인도대사 파니카를 통해 유엔군의 북진 문제를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보이려 하지 않았다.

97) *Ibid.*, p. 199.

98)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its 294th Plenary Meeting on 7 October 1950," 『한국전쟁 자료총서 50: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 관련문서 12』(국방군사연구소, 1999), 90-92 쪽

99) Schnabel, James F., *ibid.*, p. 194.

100) "Letter from Secretary of Defense(Marshall), Enclosure, Draft Message to General MacArthur,"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11』, 328쪽.

101) "Letter from Marshall to the President,"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11』, 340-341쪽.

102) "Memorandum b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FRUS 1950*, Vol. VII, pp. 933-936.

10월 17일 맥아더는 유엔군사령부 명령 제4호로 제한을 철회하고 전 유엔군 지상부대가 운영할 수 있는 선까지 북진하도록 명령했다.¹⁰³⁾ 10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국경 남쪽의 유엔군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을 철회하고 모든 지휘관은 전 예하부대를 동원하여 한국의 북단까지 전진할 것을 지시하였다.¹⁰⁴⁾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한만국경으로의 진격은 중국인민의용군과의 충돌로 나타났고 이후 전쟁의 전개과정은 잘 알려져 있듯이 38도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휴전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이 때 유엔군이 38도선에서 북진을 멈추었다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한 지 1주일 후까지도 중국이 한반도로 진입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많은 증거와 같이 중국이 모든 정치적 수단이 다할 때까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¹⁰⁵⁾ 그러나 북한군의 전략적 후퇴 실패와 이로 인한 유엔군 진격에 대한 방어 실패는 맥아더로 하여금 북한 지역의 완전한 수복을 목표로 설정하게 하였고 유엔군의 국경으로의 진격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 북한 원조로 이어지게 되어 한국전쟁은 미·중 대결의 국제전으로 전화하였다.

V. 결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냉전체제의 구조화는 우리 현대사에서 많은 굴곡과 영욕을 만들어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냉전의 기원은 남북한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내인론보다는 강대국에 의한 분단 그리고 전쟁이 국제전으로 발전하며 진행되어온 외인론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남북한의 양 정권이 들어선 후 다른 한쪽을 흡수 통일하려는 목표로 일관하였고 이는 전쟁으로 치달았다. 너무나 참혹한 대가를 치렀던 전쟁이었기에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냉전

103) Appleman, Roy E., *ibid.*, p. 670.

104) *Ibid.*, p. 670.

105) 알렌 S. 휘팅,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165쪽.

구조는 자체 재생산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반도 냉전이 한국전쟁기 38선 북진에 의해 고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의 대결 구도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어느 쪽도 상대측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강대국의 보증아래 유지된 무장평화 상태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전쟁이 국제전화 된 배경에는 38선 북진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의해 정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격멸을 주장하는 맥아더와 미 군부의 주장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전쟁을 국지화하고자 했던 미 국무부와 대서양주의자들의 주장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사라지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강경파의 주장을 전면화 시켰으며, 이는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미·중 대결로 이끌게 되었다.

미·중 충돌은 상호 완전 절멸을 추구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상호 견제 속에 제한전의 형태로 변화했다. 결국 이러한 전략으로 한반도의 전쟁은 제2의 분할선이라는 휴전선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되었고 경제·군사적인 대결 구도를 침예하게 발전시키며 냉전체제를 구조화시켜 나갔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는 남북한 양측의 화해와 협력 구조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완화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민주신보》, 《부산일보》, 《경제신문》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1: 미국가안정보장회의 문서』,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13: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15: 미국중앙정보국정보보고서』,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29: 미국국무부정책연구과문서 Korea Project File Vol. IV』,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3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4: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Country & Area Files, Korea 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41: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II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49: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X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50: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XII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자료총서 9: 미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Working Papers I』,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 1년지』, 서울: 국방부, 1951.
-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제33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 김진웅, 「냉전의 기원론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논집』 제6집, 역사교육학회, 1984.
- 김진웅, 「케난의 봉쇄정책에 관한 논쟁」, 『역사교육논집』 제13·14합집, 역사교육학회, 1990.
-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 서울: 비봉출판사, 1998.
-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1953』.
-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1953』.
-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관련 러시아외교문서』(1994. 7. 20. 내부용번역본).
-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limited war)의 성립과 분화」, 『한국사연구』 125집, 한국사연구회, 2004.
-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알렌 S. 휘팅,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 윌리엄 스톡(저)·서은경(역),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5.
- 윌리엄 스톡(지음)·김형인(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서울: 푸른역사, 2001.
-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 이정식,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과 한반도의 분단」, 연세대학교재학대학원부설현대한국학연구소국제학술회의, 1997년 10월 31일.
- 주지안룡(지음)·서각수(옮김), 『마오쩌둥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도서출판 역사

- 넷, 2005.
- 차상철, 「미국의 극동정책과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북미주학연구』, 충남대학교북미주연구소 2002.
- 하영선,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17집, 서울대학교부설국제문제연구원, 1993.
- 히라야마 타츠미(저) · 이성환(역), 『한반도 냉전의 기원 미국의 대한국정책, 1942~1946』, 서울 중문, 1999.
- FRUS 1950, Vol. VII
- MacArthur Archives, RG 6, Series 3: Operations and Plans, Box 100, Folder 11.
- MacArthur Archives,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1.
- MacArthur Archives, RG 38, Papers of Edward M. Almond, Box 3, Folder 5.
- MacArthur Archives, RG 6, Series 5: Printed Material, Box 107, Folder 3.
- Appleman, E. Roy,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Clark, Eugene, *The Secrets of Inchon: The untold story of the most daring covert mission of the korean war*. New York: Berkley Books, 2002.
- Cummings, Bruce, "Instruction: The Course of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53." in Bruce Cum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83[박의경 역],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1943~1953』 서울: 청사, 1987.
- Lippmann, Walter, "The Cold War." *Foreign Affairs* Vol. 65 No. 4 - Containment: 40 Years Later, spring 1987.
-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 Millett, Allan R., *Crossing the 38th Parallel, 1950: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the American Armed Forces*. Eighth United States Army History Office Historical Monograph 98-1, HQ, EUSA, August 1998.
- Schnabel, F. James,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 X,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Vol. 65 No. 4 - Containment: 40 Years Later, spring 1987.

● 투고일 : 2005. 10. 31.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38선 북진(Crossing the 38th parallel), 맥아더(Douglas MacArthur), 인천상륙작전(Inchon Landing), 냉전(Cold War), 크로마이트 작전(Chromite Operation)